

GS건설, 총 수주잔고 33조원 상회

2006년 매출 5조7450억원 기록 ... 토목·플랜트·환경 수주에 주력

GS건설은 2006년 경영실적을 잠정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4034억원, 매출 5조7450억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20.2%, 2.0% 증가했다고 1월22일 발표했다.

매출 총이익은 7622억원으로 12.1%, 경상이익은 5438억원으로 48.3% 증가했다.

특히, 수주는 2005년보다 10.8% 증가한 9조1297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고, 약정잔고 18조 5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수주잔고가 33조6000억원에 달해 향후 5년 이상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안정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2007년 토목, 플랜트, 환경, 건축, 주택 등 5개 사업본부에서 총 10조 4400억원의 수주목표를 세웠고, 매출도 6조5000원을 달성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07년 매출총이익 8617억원, 영업이익 4687억원, 경상이익 4800억원을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

GS건설은 2007년에도 2006년과 같은 <Cost Innovation을 통한 가치성장>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이를 위해 건설업계의 선도적 공사관리 시스템인 TPMS(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의 현장정착, Global 사업역량강화, 신 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을 3대 중점추진 과제로 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2>